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6호 [루게 제23393호] 주체100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을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관하 공장을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공장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열풍이 세차게 끓어치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도착하시자 공장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정명도동지,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 상장 오철산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현일 거세찬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선군의 나날들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공장책임일꾼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터전을 잡아 주시고 현대적인 병기장으로 꾸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공장을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10월3일

보시면서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 공장은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은 수령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영원히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오랜 기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혁명무무를 성실히 수행한 로동자, 기술자들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한 선군시대근로자들의 소행자료를 보시고 항일의 병기창의 유격대원들이 지니었던 백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데 대해 매우 기뻐

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지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불꽃을 날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각종 공작기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

오는 가공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맡겨진 전투과제를 원만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혁명무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성스러운 시대적사명감을 자각하고 모든 전선에서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우리의 조국은 난공불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선군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쁨촬영을 하시였다.

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히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나아가길 휘황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며 따듯이 고무 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뉘그러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국방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시였다.

〈 2 0 1 1 . 3 . 1 0  
김 정 일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은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결사 관철해나갈 맹세를 담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드립니다

언제나 뵈고싶고 가까이 모시고싶은 경애하는 장군님

오메에 그렇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지난 1월 30일 기업소에 또다시 모신 끝없는 걱정과 환희에 넘쳐있는 우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은 장군님께서 주신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하고자말 불타는 맹세를 담아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우시려고 올해에도 정초부터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걷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매년에 없는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업소를 또다시 찾아주시심을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나 모시고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지 못한 자책감으로 모대기며 따뜻한 봄날에는 완공의 기쁨을 안고 장군님을 꼭 모시고싶었던 저희들인데 추위로 제일 추운날 또다시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그동안 정말 일을 많이 했다고 거들거들 치하해주시면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으니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워 우리모두는 울었습니다.

돌아보면 짧은 기간에 최첨단의 물건해공정이 건설된데 이어 현대적인 가스화공정까지 웅장하게 일떠서게 된 이 거창한 변혁은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가스화암모니아생산공정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당은 흥남의 로동계급을 믿는다고 하시며 자신과 보조를 맞추어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자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에 새한 불길을 지퍼주었습니다.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우리들은 수십년세월 총총이 깔린 낡은 기초들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 격렬한 전투를 벌리면서도 어려움도 힘겨움도 다 이겨낼수 있었습니다.

오시여도 좋은 날, 좋은 길이 아니라 심한 무더위와 장마비가 쏟아져내리는 삼복철과 맹썬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오시고 가스화공정건설에 필요한 설비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야밤삼경의 찬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락원과 통성을 비롯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새기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자욱자욱 눈물속에 따라 걸으며 우리들은 장군님과 뜻도 술결도 같이할 결의를 억척같이 다졌습니다.

오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한가슴 가득히 선물도 안겨주시며 소박한 예술소조공연도 보여주시면서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라고 높이 내세워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은 흥남땅에 영원한 전설로 새겨져 우리에게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주고 끝없는 기쁨과 평안을 안겨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나 맞닿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비료생산정상화와 가스화공정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며 주체비료생산체제를 튼튼히 세워주시어 오늘은 우리 기업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선군시대의 주체적이고 종합적인 비료생산기지로 새롭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의 새 비료생산공정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나날에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만 하면 언제나 승리하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사업은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리정표를 따라 드림없이 전진하리라는것을 심장깊이 신념으로 새겼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장군님을 실천으로 결사옹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력갱생이 제일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담력과 배정으로 가스화해상의 중요설비장치물들을 우리의 지혜와 기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제국주의자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겠습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숭고한 애국의 한 마음으로 1계절마다공사를 붙이 번쩍나게 해제겨 부문별 시운전을 끝내고 주체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함으로써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를 온 세계에 다시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물건해공정의 CNC화를 실현하며 가스화공정의 CNC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 기업소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기업소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우리 당의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정해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물결전을 드세차게 벌려 기어이 비료산출 더 높이 쌓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양제식당과 로동자합숙을 훌륭히 건설하여 종업원들이 살기 그럭을 보게 하며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마대에 혁명적기백과 전투적량만이 차넘치게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강성대국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와 태양민족의 영원무궁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건설자들이 드립니다  
주체100 (2011)년 2월 12일











